

# 제도의 불완전성, 관계적 교환, 제도적 차원

Rhee, Sung Sup  
rheess@ssu.ac.kr

# 주류 경제학 이론 틀(경제원론)의 결함

- 역사를 통한 발전과정이 부재: 고대의 시장과 현대의 시장, 미국의 시장과 중국의 시장에 구분 부재; 제도의 부재
- 사업심(entrepreneurship)의 역할이 끼어들 여지가 부재: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동성이 사업심에서 시작
- 방법론적 개인주의: 공동사회적 문제에 고려가 부재
- 공리주의(utilitarianism)의 한계

# 문제점

- '시장이 무엇인지'에 대한 이해 결핍
- 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 결핍: 시장간섭자로만 오해;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?
- 도덕규범, 건전성 규제(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 규제 or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는 규제)의 구분에 대한 이해 결핍
- 다른 사회현상(예, 경영, 법, 행정, 사회, 정치 등)과 단절
- 닫힌 이론 구조: S(p-q)의 틀 속에 경제학이 포획

# 이론경제에 제도 축의 도입

- 문제의 원천
  - 1) 둘 이상 경제주체의 문제: public choice
  - 2) Opportunism(기회주의 행태), 인지능력의 한계(bounded rationality)
- 문화인류사: 역사적으로 제도가 위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등장
  - 1) 종교, 도덕, 법 규범, ...
  - 2) 자유주의, 법치,.. (North, Wallis, Weingast 2009)

# 제도의 불완전성

- 제도의 불완전성 (Eggertsson 2005)
  - : 본원적 특성
- 재산권 제도의 불완전성
  - : 법원에 진행중인 수많은 소송,  
법원에 까지 오지 않은 수많은 분쟁

# 관계적 교환 (Relational Exchange)

- 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간의 대응조치는 신뢰(trust)관계의 확립이었다 [(Fukuyama 1995: integrity 의 의미를 내포)와 차이].
-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본능적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기 시작했다. 그것은 가족애(家族愛) 및 씨족사회의 공동체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친구 (friendship) 및 결사조직 관계(fraternity)로 연장되었다. 그렇게 해서 신체적 및 소유의 안전을 도모하였다.

- 인간의 사회활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관계적 교환활동이다.
- 사실, 개인간 신뢰관계의 추구는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, 예컨대 원시사회에서부터 있어온 가장 원초적 현상이다.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, 가장 원초적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(cf. spontaneous order; Hayek 1973).
- 과거와 현재, 동서양을 막론하여 어느 사회에서나....

## 정의 (관계적 교환):

관계적 교환이란, 제도가 불완전한 조건에서, 광의의 신뢰(trust)를 매개로 하여,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고, (재산권이 설정되지 않는) 교환 대상에 대하여 소유의 안전, 복지추구를 도모하는 교환활동을 말한다.

# 공리주의 밖의 영역

- 여기서 신뢰(trust)는 utilitarian한 개념이 아님: 제도는 복수 개인간의 합의
- 복수 개인간에 utilitarian 목적의 추구는 불신을 낳는 경향이 있다: impossibility (Arrow) 외 다수
- 인간 사회에는 공동선에 대한 공감(sympathy)가 있다는 것이 A. Smith의 주장이고, 공동선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Kant의 주장이다.
- 자유주의, 법치질서의 발전은 역사적 증거

# 조직행위와 관계적 교환

- 관계적 교환 활동이 인간활동의 가장 원초적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실례는 조직의 운영을 들여다보면 나타난다.
- Coase (1937), Williamson (1991)는 조직질서를 명령질서로 규정하고 이것을 시장질서와 구분하고 있다.
- 조직 안에는 위계제도(hierarchical institution)가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명령질서를 규정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된다.
- 그러나 이 위계제도 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, 따라서 그 자체로 질서를 구축할 수 없다.
- 실제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 간에 신뢰를 확인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활동을 시작하게 된다.
- 회사나 공공기관과 같은 조직도 그것을 움직이는 질서는 위계간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, 인간의 원초적 본성에 기반을 둔 관계적 교환활동 위에 성립하는 것이며, 조직의 운영규정은 관계적 교환활동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.

# 시장의 가치교환

- **정의 (가치교환):**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에 대하여 재산권 가치가 평가되어 거래되는 교환을 가치교환이라고 한다.
- 가치교환은 가격을 매개로 한 교환활동을 말한다.
- 가치교환의 전제는 재산권의 확립이다.
- 예컨대 신뢰, 우정, 가족애, 결사집단의 단결심 등은 재산권이 확립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치교환이 가능하지 않다.
- 재산권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교환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.

-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되는 물건 쌍방의 가치평가에 완전한 신뢰가 있기 어렵다.
- 그러나 물건이 화폐와 교환되면 교환되는 물건의 가치평가가 화폐적 단위의 평가로 확정되기 때문에 물물교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분쟁의 여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.
- 물론 분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그 부족한 부분만큼 보조적 신뢰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관계적 교환이 그 보완적 역할을 해줌으로써 거래가 성립하게 된다.
- 가치교환 역시 인간생활의 원초적 활동이다. 그러나 가치교환은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적 교환과 비교하여 제한적 영역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.

# 관계적 교환과 가치교환

- 관계적 교환이나 시장의 가치교환이나 인간간의 교환본능의 소산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. 차이가 있다면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.

# 신뢰구축비용 TBC[i]

- 신뢰구축비용  $TBC[i] = TBC(I)(RX\alpha)(j, k)$ 
  - : 제도환경 I를 가정할 때, j씨가 k씨와 관계적 교환  $RX\alpha$ 를 성사하는데 소요되는 신뢰구축의 비용

# 명제 1 (신뢰구축비용 $TBC[i]$ 의 불확정성)

신뢰구축비용  $TBC[i]$ 은 불확정적 (indeterminate)이며 일관성(inconsistence)이 결핍되어 있다. 신뢰구축비용의 척도로 신뢰를 대신하여 표시하려는 시도는 성립될 수 없다.

## [증명}

- 신뢰구축비용  $TBC(I)(RX\alpha)(j, k)$ 는 주체  $j$ 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, 거래 상대방( $k$ )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. 거래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신뢰구축비용이 다르게 결정된다.
- 어떤 제도환경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신뢰구축비용은 다르게 된다.
- 제도환경과 거래 당사자가 바뀔에 따라서 상황여건의 변화가 확정적이지 않으며(indeterminate), 이에 대한 신뢰구축비용은 일관성 없이(inconsistent) 변화한다.
- 사실 신뢰의 구축이란 인간관계의 불확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어떤 신뢰조건을 가정하더라도 그 신뢰조건으로 대응되는 인간관계의 상황여건은 확정적이지 않다(indeterminate).
- 따라서 신뢰를 비용으로 표시하려는 시도, 즉 신뢰구축비용 수준으로 신뢰를 대신하여 표시하려는 시도는 성립될 수 없다.

# $S(p-q)$ 와 $S(p-q, [i])$

- $S(p-q)$ 는 가격  $p$ 와 물량  $q$ 로 표시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(Arrow-Debreu) 이론체계이다.
- 이 이론체계에는 신뢰(trust)와 같은 제도요소가 구성요소에 들어있지 않다. 즉 관계적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
- $S(p-q, [i])$ 는 신뢰(trust)구축을 거래성립의 조건으로 포함한 이론체계이다. 즉 관계적 거래가 포함된 이론체계이다.
- $S(p-q, [i])$ 는 신뢰구축  $[i]$ 를 통한 관계적 거래가  $p-q$ 체제의 결정과 동시에 진행되며 또한 2체제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용체계이다.

# 명제 1 (신뢰구축비용 $TBC[i]$ 의 불확정성)의 함의

- 명제 1이 의미하는 바는 관계적 교환의 경우 이론체계  $S(p-q)$ 로 표시될 수 없으며, 새로운 이론체계  $S(p-q, [i])$ 로만 표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이것은 주류경제학의 이론체계를 가지고 제도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## 명제 2 (관계적 교환 RX의 특수 형태인 시장의 가치교환 VX)

시장의 가치교환 VX는 교환의 대상에 재산권이 완전하게 확보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교환 RX의 특수 형태이다.

## [증명]

- VX에서 완전한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에 대한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신뢰구축이 필요없게 된다.
- 완전한 재산권이 확보된 대상에 대한 VX 결정이, 이론체계에서 신뢰구축 요소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이론적 마찰을 빚는 것이 아니고, 신뢰구축요소에 대한 고려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VX 결정을 하면 된다.
- 모든 거래대상에 완전한 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, 이론체제는  $S(p-q, \text{Fix}[i]) = S(p-q)$ 가 된다.
- VX는 RX에서 신뢰구축요소에 대한 고려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거래결정(VX)를 의미하기 때문에 VX는 RX의 특수 경우이다.
- VX에서 재산권 확보가 완전하지 못한 경우는 거래가 신뢰구축을 수반하는 경우로 위의 VX와 RX가 복합된 경우이다.

## 명제 2 (관계적 교환 RX의 특수 형태인 시장 의 가치교환 VX)의 함의

- [명제 2]는 시장의 가치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교환 거래가 관계적 교환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- 이것은 Coase (1937)가 시장과 조직을 배반적 선택의 문제로 파악된 것은 잘못된 분석구도에 입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.
- 관계적 교환의 개념으로 보면 시장과 조직은 별개의 분석체제가 아니며, 관계적 교환의 차원으로 통합되는 단일체제의 문제가 된다.
- 조직은 재산권 확보가 안되는 대상에 대하여 관계적 교환을 통한 분업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다.

# 신뢰 구축과 제도의 진화적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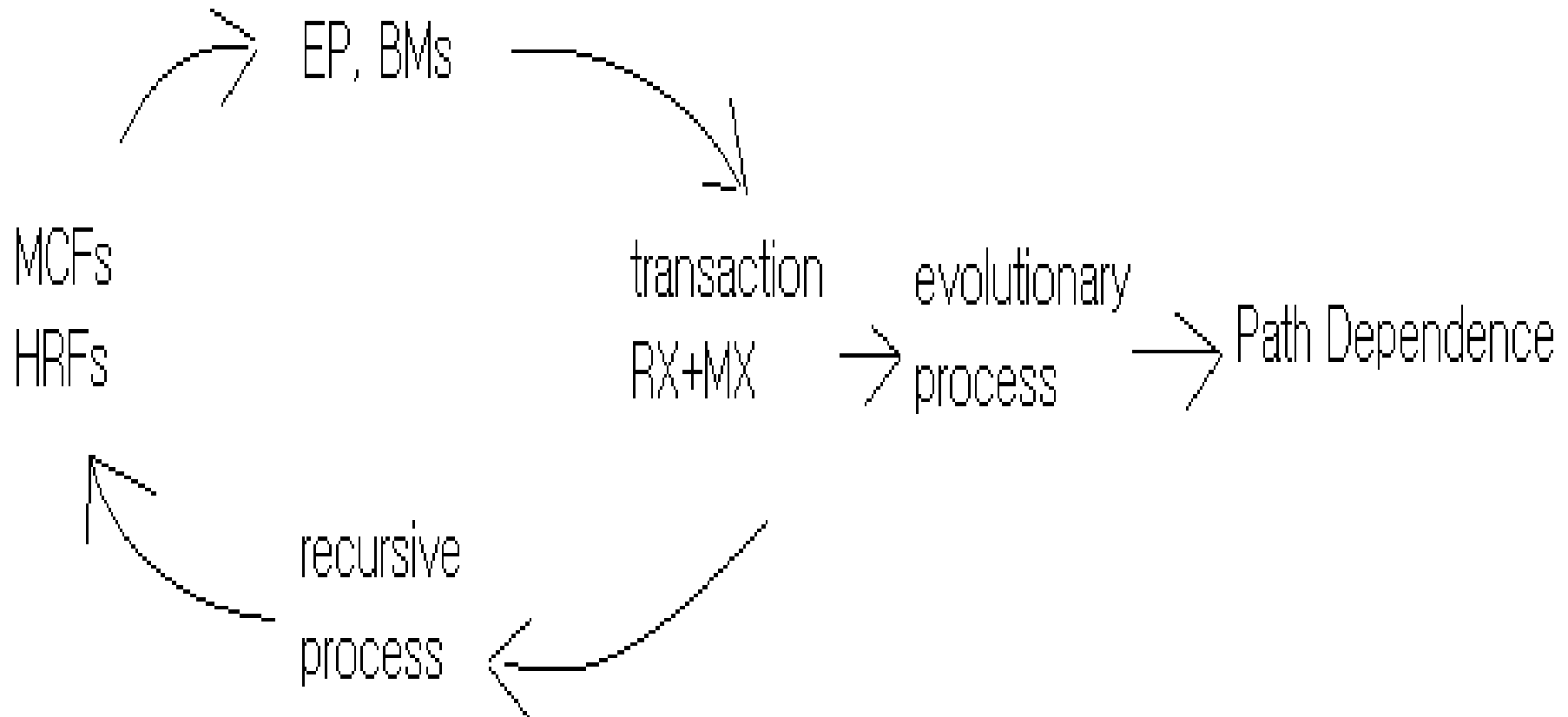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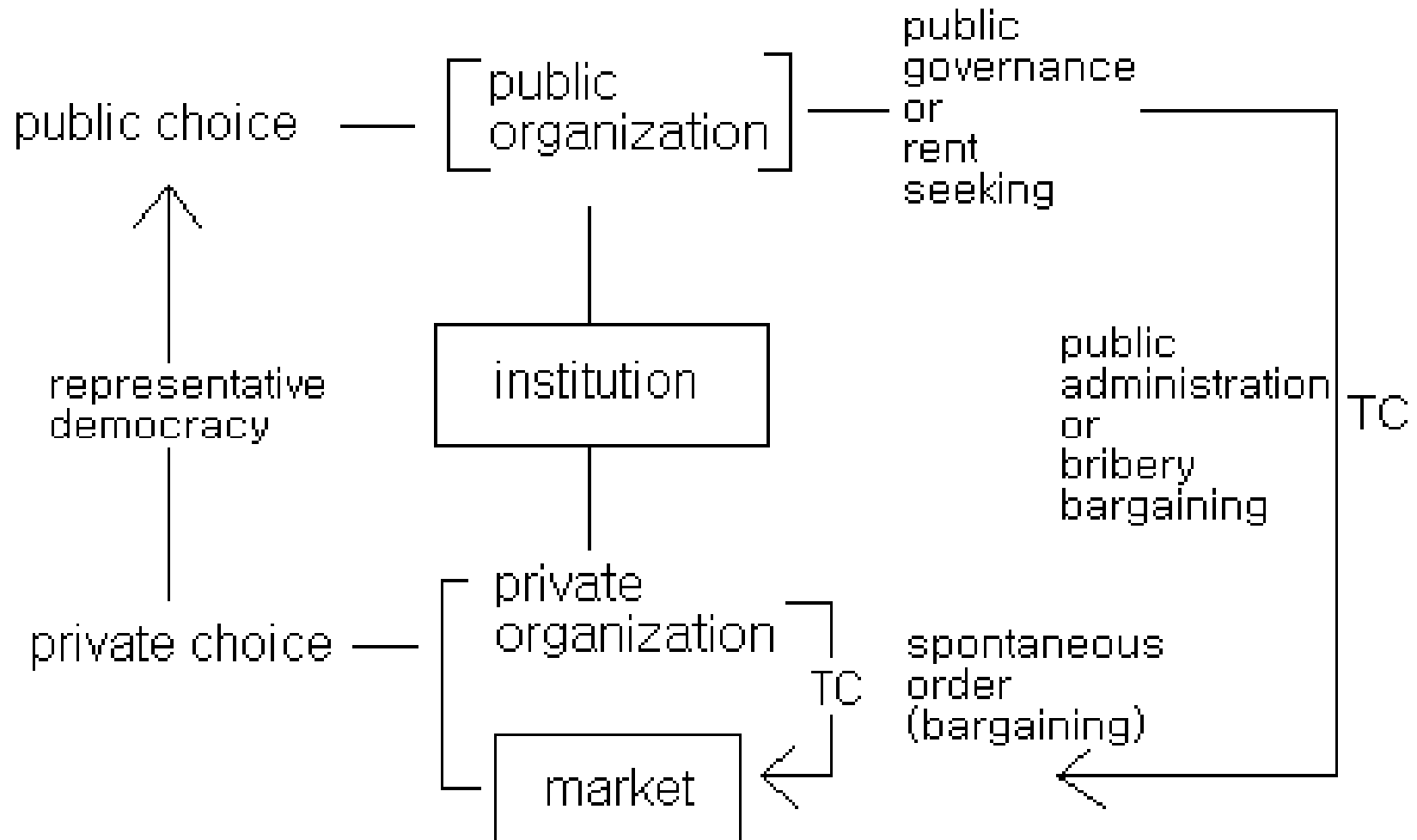


Figure: Institution and Transaction Cost



Note: TC - transaction cost

# 이 연구의 결과로....

- 제도 발전의 경로 의존성: 위 그림
- 사업심 <- 제도의 불완전성
- 정부의 역할 <- 재산권 제도 발전 <- 신뢰구축
- 방법론적 개인주의 및 공리주의의 한계  
: 공동체 문제 -> 제도
- 케인즈 퍼즐 (<- Say's Law):  $S(p-q, [i])$ 는 Say's Law 가 성립하지 않음; 다만 시장경제 확대에 따라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.
- 경제원론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제도적 요소의 변화과정을 포함해야 함.

# 관계적 교환과 가치 교환

- 관계적 교환:  
재화, 서비스(시간포함) -> 신뢰  
-> 재산권 or 신체적 안전
- 가치 교환:  
재화 -> 화폐 -> 재화

그림: 비즈니스모델 간 경쟁과 과정가격의 불확정성

